

# 정직해야 할 아동문학

유경환

한국아동문학인협회 회장·문화일보 논설위원실장

해마다 오월이 되면 아동문학은 오월 한달의 계절문학처럼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 계절문학의 대접을 받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 책임은 아동문학인들에게 있다. 이런 문학현상이 아동문학인들 탓이라고 말하는 아동문학인은 그러나 별로 많지 아니하다.

이 땅에는 아동문학인이 얼마나 있을까. 한 구백명에 가깝다고 말하는 이가 있다. 단체에 등록된 한 통계수치로는 칠백명에 이른다. 칠백명 가운데 칠십명만이라도 아동문학인이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까닭을 스스로 '우리들의 탓'이라고 자인한다면 다행이겠다.

첫째로 아동문학인이라고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의 발표작품을 살펴볼 때, 주어 동사 따위의 자리매김이 정확치 못해서 문맥에 혼동을 주는 글이 적지 않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이런 아동문학인의 직업이 교직자이건만 문법적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이다. 짧거나 길거나 완전한 문장을 쓸 능력을 못 갖춘 사람이, 어떻게 작가 노릇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도 비평가들이 없어 이런 점을 지적해 주지 못하니 안타까운 일이다.

둘째로 아동문학인이라고 대접을 받는 사람이 어린이의 글을 모아 책을 펴내서 자기 이름만 널리 알리는 경우가 있다. 가장 정직한, 가장 의로운 사람으로 알려진 사실과 이런 행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인가.

셋째로 아동문학 관계인들이 모여 좌담회를 열어 그것이 어느 문예지나 전문지에 게재되면, 그 이듬해 비슷한 시기에 수록된 좌담회 내용의 일부를 인용없이 재인용하거나, 타인 발언내용을 자기 이름으로 도용 발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인용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잘 못 배운 교육정도 이수자라면 할 말이 없다. 22개 대학에 출장강의하는 사람까지 타인의 글을 자기 주장처럼 읽어 주어 학생들이 써내는 레포트에 강의자의 글로 주(註)가 붙기까지 한다.

위에 나열한 세가지 유형의 예는 현재 우리 아동문학 풍토에 바람 타는 역새춤처럼 '현란한 혼란'을 일으키는 문제 가운데 우선순위가 되는 논쟁거리이다.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날 수 있는 까닭은, 아동문학에 관한 것들이 한정된 소수의 관심자에게만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동문학은 결코 어린이만을 위한 장르가 아니다. 아동문학은 어린이용 비타민 같은 시기적 영양제가 아닌 것이다. 아동문학은 성인이 향유하는 일반문학과 동심축(同心軸)을 함께하는 인생문학이다. 어린이와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읽고 함께 나누는 인생문학인 것이다. 더욱이 인생이 외로워지거나 추워질 때 따뜻한 분위기에서 함께 위로받는 그러한 위상의 문학이다.

손가락같은 표목이 자라 넓은 그늘을 거느리는 거목이 된 한그루 나무에 비유해 보라. 어린이가 읽고 감상하고 이해할 수 있는 나이테의 폭은 좁으나, 성장할수록 읽고 감상하며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듯, 문학의 영역이 확장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되 언제나 그 중심을 품고 있지, 결코 떨어져나가 별개의 서자 취급을 받지 아니한다.

아동문학은 오월 계절문학이 아니며 어린이용 전용문학이 아니다. 아동문학은 인생설계의 기초를 이루는 기초문학이다. 기초문학의 역할과 기능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오늘날 아동문학인의 소임이다. 아동문학인은 정직해야 한다.

- 특집/어린이 문화와 책
- 2 너무나 무덤덤한 우리의 창작동화 - 조대현  
창작동화 전멸 위기... 자기탈피의 노력 있어야
  - 3 아동문학상의 인플레 현상
  - 4 미래의 발목 잡는 17세기 서양동화들 - 이주영  
패권주의·인권차별의 가치관 그대로
  - 5 어린이 책문화의 등대 '어린이도서연구회'
  - 6 만화만 창궐하는 어린이잡지들
  - 7 어린이책 기획번역 모임 '햇살과나무꾼'  
어린이책 전문 창작집단 '우리누리'
  - 8 어린이 전문서점이 뽑은 '어린이책 베스트'  
가을글방/고덕 아릅드리/목동 나무마을/봉천  
미운돌맹이/지혜의 빛/초방 본점/도깨비 방망이  
색종이/열린 글사랑/광명 동원/분당 아침누리  
성남 열린책방/춘천 동화나라/청주 책나라  
남원 초방/여수 서당/마산 민들레/곰솔

출판 화제 14 책으로 떠나는 가족나들이·외

문학 시론 16 《되돌아보기》 소설에 감춰진 의미 - 손경목  
과거와 현재 끌어안는 긴장감 있어야

책갈피 산책 17 《유진 뎀스》를 읽고 - 방현석

시집 서평 18 다채로운 시적 음조의 울림 - 황병하  
정끝별, 김수영, 안천수의 첫시집을 보고

책갈피 산책 19 《코끼리가 울고 있을 때》를 읽고 - 최성각

학대 서평 20 세심한 조율 거친 문학개론서 - 임규찬  
김인환·성민엽·정과리 엮음 《문학의 새로운 이해》

책갈피 산책 21 《나의 친구 마키아벨리》를 읽고 - 강준식

출판계 소식 22 아동용 그림책 수입 크게 늘었다·외

정보 라이트 23 번역물찾기 ⑤ - 조승훈

서평 26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역사입문》 - 정재정  
이호철 《지역농업의 심층연구》 - 성진근  
28 일리치 《젠더》 - 박홍규  
라키토프 《컴퓨터 혁명의 철학》 - 조환규  
29 젠크스 《문화란 무엇인가》 - 김창남

이 책 그 사람 30 《록, 그 폭발하는 젊음의 미학》 펴낸 임진모씨  
《리얼리즘의 옹호》 펴낸 윤지관 교수  
31 《역사철학》 《역사인식론》 펴낸 한명수 교수  
《고고학 이야기》 펴낸 이선복 교수

새책 흐름 32 '성'(性)으로 가는 숨은 길찾기·외 / 인문·사회  
32 새책 속으로 / 38 새로 나온 책  
48 출판인에게 띄우는 편지 - 이중한

표지사진 / '96 안데르센 상 수상작가 두산 칼라이의  
〈대문자 A를 가진 바보〉(관련기사 14면)